

# 신라의 국가불교 전개와 정치개혁

박 의 백 | 위덕대학교

국가불교는 국가체제의 유지와 연관된 불교를 지칭한다. 신라의 국가불교 전개는 중고기 첫 왕인 제23대 법흥왕대(514~540)의 불교수용을 거치면서 시작되었고, 제24대 진흥왕대(540~576)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국가불교는 왕권강화를 전제로 한 정치·제도·사상·문화 등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으며, 불교사상과 통치이념을 특별히 구분하지 않았다.

이 글에서는 신라 중고기의 국가불교 전개사를 기초로, 법흥왕대와 진흥왕대에 걸친 정치개혁의 맥락을 고찰해보았다. 이를 통해 네 가지 정치적 함의를 읽어낼 수 있었다. 첫째, 신라의 국가불교 전개가 정치개혁을 추동(推動)하였다. 둘째, 당대(當代)의 불교는 정치통합의 기능을 훌륭히 수행하였다. 셋째, 신라의 불교수용은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던 중국과의 소통을 독자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신라인들로 하여금 주변부의식을 불식시켰다. 넷째, 신라정치의 상향적(上向的) 리더십이란 의미있는 코드를 포착해낼 수 있었다.

## I. 서언: 국가불교의 전개와 신라정치

불교는 이성적이며 보편적 성격을 띤 것으로서 국가와 민족을 초월한 것이나, 인도와 중국과 신라에 있어서 그 전개양상은 사뭇 달랐다. 인도에서의 불교와 국가의 관계는 원칙적으로 정법을 근본으로 삼는 교주왕종(教主王從)의 입장을 취하였기 때문에 국가불교의 색채를 강하게 취하지는 않았다. 세간과 출세간을 관철하는 정법(dharma)은 일체 인간생활의 기준으로서, 크게는 국가의 정치에서부터

작게는 개인의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모두 그것을 떠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교교단이 정법의 호지전승자(護持傳承者)인데 비해, 국가는 정법활용자가 되어 국가와 불교는 정법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관계였다(최병헌 1990, 320; 鎌田茂雄·장휘옥 역 1992, 21).

그러나 중국에 전해진 불교는 국가와 왕주교종(王主敎從)의 관계로 바뀌었다. 오랜기간 왕법과 불법의 대립항쟁을 거쳐 마침내 불법이 왕법에 굴복한 결과였다. 중국역사상 불교가 국가의 지배체제와 연결되어 국가불교적 색채를 농후하게 띤 것은 남북조시대부터였다. 남북조 중 호족(胡族)의 북조는 국가중심적 국가불교의 성격이 강하여 '왕즉불사상(王卽佛思想)'을 배제한 반면, 한족(漢族)의 남조는 '사문불경왕자론(沙門不敬王者論)' 같은 불교중심적 국가불교의 성격이 강하여 양(梁) 무제(武帝)의 경우도 사원에 몸을 바쳐[捨身] 봉사하기를 마다하지 않았던 것이다. 남북조를 통일한 수나라에서는 불교를 통일국가의 정신적 지주로 삼았는바, 북조계통의 국가불교의 성격이 강하였다. 그 뒤를 이은 당나라에서는 왕법 아래 불법이 종속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확정되기에 이르렀다(최병헌 1990, 320-321).

이에 비해 신라에서는 왕법과 불법 간의 특별한 논쟁은 전개되지 않았고, 처음부터 북조계통의 국가불교적 성격이 왕실을 중심으로 수용되어 발전하였다. 불교는 국가목적에 봉사하는 종교로서 받아들여졌고, 정치와 불교는 불가분의 밀접한 관계를 맺었던 것이다. 이것은 왕법과 불법이 처음부터 일체시되어 받아들여진 것이라 할 수 있으며, 그 까닭을 찾아보면 역설적이게도 신라의 후진성이 불교를 통한 왕권강화와 국가체제 정비 등을 요청하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왕법과 불법의 일체시가 가능하였던 것이다(최병헌 1990, 319-321).

신라의 불교수용은 부족연맹체제에서 고대국가체제로 전환될 무렵에 이루어져 고대국가체제의 정비와 직결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은 고구려와 백제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지만, 이들보다 150여 년 늦게 불교수용을 한 신라의 경우는 왕권과 결합한 정도가 보다 긴밀하여 국가적 색채가 아주 농후하였다. 이것은 신라가 삼국 중에서 문화수준이 가장 낮고, 고대국가로의 성장이 제일 늦었던 까닭에 불교수용을 하면서 비로소 국가체제를 정비하고 왕권의 강화를 기도(企圖)한 사실과 연관된다고 할 것이다(김철준·최병헌 공편 1986, 128).

그리하여 신라 중고기(中古期)의 불교는 왕권과의 대립이 처음부터 없었으며,

왕실은 불교를 통하여 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왕을 불타와 동일시하면서 홍법(弘法)의 전륜성왕(轉輪聖王)으로서 숭배하는 진종설화(眞種說話)를 성립시켰다. 중고기의 여섯 왕명을 모두 불교에서 따와 '불교식 왕명시대'를 이룸으로써 신라사의 시대구분에 있어서 독특함을 연출하였다. 왕명만이 아니라 왕족들의 이름을 석가족에서 취하여 왕족은 찰제리종(刹帝利種)이라는 진종설까지 확립하였다. 이는 왕즉불사상의 연장선상에서 있는 것이다. 중고기 신라왕실은 전통설화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불교설화를 끌어다가 전통설화를 연장시키고 강화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신라 중고기의 적극적인 국가불교현상은 당시 신라의 사회적 기반과 문화수준에 기인한다고 할 것이다. 불교수용 당시 고구려와 백제는 사회적 기반과 문화수준에서 상당한 성장이 이루어져 있었으나, 신라는 그러하지 못하여 불교에 보다 경사(傾斜)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김철준·최병현 공편 1986, 128-129).

신라 중고기 국가불교의 초기양상은 고구려 불교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입었다고 할 수 있다. 진흥왕 때 신라로 망명하여 온 고구려의 혜량(惠亮)이 최초의 국통(國統)이 되어 교단의 조직과 통솔을 책임졌던 것이다. 그 뒤는 중국유학파에 의해 주도된 것으로 보여진다. 진평왕 때 국가불교를 선도한 원광(圓光)은 수나라 유학을 다녀온 엘리트로 『열반경』·『반야경』·『섭대승론』·『성실론』 등을 강론하였고, 〈걸사표(乞師表)〉를 썼다. 선덕왕 때 신라불국토설(新羅佛國土說)을 집대성하여 국가불교사상을 꽃피운 자장(慈藏)은 당나라 유학승이다. 대국통이 되어 계율을 정립하고 교단을 정비하여 신라불교의 제도적 발전과 국가의 사상통일에 크게 이바지함으로써 명실공히 신라불교를 국가불교로 확립하였다. 황룡사 9층탑의 건립을 시작한 것은 자장의 국가불교의 상징행위라 하겠다(김철준·최병현 공편 1986, 130-131).

국가불교를 왕실의 번영은 물론이고 국가 그 자체를 종교적으로 지탱하는 불교, 즉 국가체제의 유지와 연관된 불교라 할 때(홍윤식 1992, 230), 신라의 국가불교 전개는 중고기 첫 왕인 제23대 법흥왕대(514~540)의 불교수용을 거치면서 시작되었고, 제24대 진흥왕대(540~576)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법흥왕대의 불교수용은 국왕지배체제의 확립과정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진흥왕대의 불교는 국가종교로 확고히 발전하게 되었다. 국가불교는 왕권강화를 전제로 한 정치·제도·사상·문화 등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으며, 불교사상과

통치이념을 특별히 구분하지 않았다. 불교는 당시의 통치이념을 합리화시키는 관념체계로 변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위영 2001, 116-117).

진흥왕대의 전문성왕사상이나 미륵신앙은 신라 지배체제의 권위를 지키는 방안이었고, 제도적으로 정비된 승관제(僧官制)는 국가에서 승려를 관직에 임명하여 불교를 통제하려는 정책이었다. 승관제는 세간과 출세간을 엄격하게 구분하기보다는 승려를 관리에 임명함으로써 국왕의 통치이념을 확대하는 국가통치조직의 일환으로 작동한 것이다. 곧 승관제는 국가불교의 성격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제도라 할 것이다(위영 2001, 117-118).<sup>1)</sup> 또한 진흥왕대의 화랑도제도 운용, 백고좌법회와 팔관회의 개최, 황룡사 장유존상 조성 등은 불교를 국가의 지도이념으로 적극 선용한 진흥왕대 국가불교의 상징적 모습이라 할 만하다.

이 글에서는 이상과 같은 불교-국가 관계사 및 신라 중고기의 국가불교 전개사를 기초로, 법흥왕대와 진흥왕대에 걸친 정치개혁의 맥락을 고찰해보기로 한다. 여기에는 국가불교 전개가 정치개혁의 유일한 동인(動因)라는 역설을 피하기 위하여, 국가불교가 전개되기 직전 단계인 지증왕대에 이루어진 정치개혁을 먼저 유심히 살펴보고자 한다. 말하자면 법흥왕대의 불교수용과 국가불교의 전개라는 정치적 사건을 가능하게 한 선대 지증왕의 정치적 리더십을 전제로 함으로써, 정치개혁의 제 국면<sup>2)</sup>이 내포하고 있는 정치적 역동성을 살리고자 하는 것이다.

1) 위영(2001, 162-163)은 신라 중고기의 국가불교를 이해하는 키워드의 하나로 승관제를 들면서, 승관제에 초점을 맞추어 국가불교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1) 신라 중고기 사회발전의 이념은 불교가 담당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승려 집단의 역할이 국가적 차원에서 요구되었는 바, 승관제는 이러한 사정을 호종하고 국왕의 통치이념을 합리화하기 위해 설치된 관부였다. (2) 신라사회에서 불교는 공인과 함께 국가불교로 발전하였으며, 국가불교에 있어서 정치와 종교의 엄격한 구분은 없었고, 승려들은 개인적인 구도활동보다는 왕권에 종속되어가는 경향을 보였다. (3) 승관제는 신라 진흥왕대에 국가가 승려를 통제하기 위해 설치한 관부로서, 그 조직은 중앙승관과 지방승관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그 증치(增置)와 분화(分化)의 과정은 승관제가 관부로 조직되었음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4) 승관에 소속된 승려들은 신분상 고품의 계약을 받았으며, 중앙승관은 진골출신이 임명되었고, 지방승관은 주로 6두품이 등용되었으며, 승관의 계서적(階序的) 편제는 국통-도유나계-대서성-주군통으로 대별되었는 바, 주군통은 지방승관을 이른다.

2) 급격한 정치변화 뒤에 펼쳐지는 제 국면에 대해서는 S.S. Wolin의 7단계론이 있는데, 이에 대한 소개로는, 공성진(1991, 43-45)를 참조할 수 있다. 한편 윌린의 정치사상사적

## II. 토대구축으로서의 지증왕대의 정치개혁

삼국정립의 구조 속에서 미미한 발전을 보여왔던 신라는, 상고기(上古期) 말왕(末王)인 제22대 지증왕대(500~514)에 이르러 과감한 정치개혁을 추진하여 법흥왕대 정치발전의 정초를 닦은 것으로 평가된다. 64세에 어렵게 집권한 지증왕<sup>3)</sup>은 그 집권과정의 어려움만큼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재위 14년간 상당히 강력한 개혁정책을 감행하였다.

『삼국사기』에는 지증왕 1~2년의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 이것을 집권기반의 약화로 해석하기도 한다(박성천 1999, 1). 그러다가 3년에 (1) 순장제도를 폐지하고, (2) 직접 신궁에 제사를 지냈으며(親祀神宮),<sup>4)</sup> (3) 농사를 권장하고, (4) 우경을 시작하였다(삼국사기 4 신라본기 4 지증왕 3년조).

국왕과 왕족, 귀족과 지역수장 등이 죽으면 남녀 각 5인을 함께 묻는 순장제도의 폐지는 여러 의미를 가진다. 첫째, 우경이 시작된 해이므로 농업노동력의 확보라는 의미를 갖는다. 둘째, 사회변동의 차원에서 노비층의 지위상승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순장대상의 부족과 인신공양사상의 약화라는 측면이다.

이러한 세 가지 의미분석과는 달리 지증왕의 첫 개혁조치인 순장제도 폐지는 극히 정치적인 맥락을 가지고 있었다는 분석이 있다(박성천 1999, 28-33). 순장제 폐

관점이 잘 드러나 있는 저작으로는, 월린(Wolin 1960): 월린(Wolin 1989) 등이 있다.

- 3) 이 점에 대해서는, 박성천(1999)이 잘 논구하고 있다. 소지왕의 날이군(捺已郡) 행차 및 납녀(納女)사건 이후 왕은 갑자기 홍거(薨去)하고, 내물방계 세력인 지증왕이 내물직계 세력·소지왕모(王母) 세력·소지왕비 세력 등을 누르고 '집권' 하였으나, 집권기반의 취약으로 갈문왕(葛文王) 호칭을 폐지 못한 미즉위 상태에 계속 머물게 되었다. 이러한 정치적 위기 속에서 지증왕은 집권 3년(502)에 순장제도 폐지를 핵으로 한 과감한 정치개혁으로 집권 4년(503)에 마침내 즉위할 수 있었다. '즉위'는 갈문왕 호칭을 버리고 국왕으로 정식호칭되는 것을 말한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503년 10월에 국왕으로 호칭되는데, 만약 영일 냉수리비가 503년 9월 25일 건립되었다는 학설에 따르면, 이 비에는 여전히 갈문왕으로 표기되고 있음을 볼 때, 503년 10월 이전은 정치적 위기 속의 즉위 이전단계라고 하겠다.
- 4) 신라의 신궁설치의 정치사회적·사상사적 의미에 대해서는, 최광식(1983)을 참조할 수 있다. 특히, 불교공인을 무불교대(巫佛交代)가 아닌 재래신앙을 기반으로 외래신앙인 불교를 받아들여 사상적 발전을 꾀한 것이라는 해석이 눈길을 끈다.

지 이후 지증왕의 정치적 자신감의 표현이라 할 '친사신궁'의 기사가 나오는 것을 볼 때 순장제도 폐지의 정치적 의미는 명료해진다. 당시 순장은 중앙과 지방에 걸쳐 국왕만이 아니라 왕족·귀족·지역수장 등이 광범위하게 채택하고 있었음에 비추어볼 때, 이를 폐지함으로써 비례적(非禮的) 구습을 혁파하는 것이 되어 여론의 폭넓은 지지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를 발판으로 하여 지증왕은 집권 4년이 되던 해 10월에 (5) '갈문왕'의 호칭을 폐고서 정식즉위하여 '신라국왕'으로 불리우게 된다. 이 때 (6) '신라'라는 국호도 정립된다. 이들 두 사실(史實)에 대한 관련기사를 보면 다음과 같다.

시조께서 창업하신 이래로 나라 이름이 정해지지 아니하여 혹은 사라(斯羅)라 하고, 혹은 사로(斯盧)라 하며, 혹은 신라(新羅)라 하는데, 신 등은 생각컨대, '신(新)'은 덕업이 날로 새롭다는 뜻이고(德業日新), '라(羅)'는 사방을 망라한다는 뜻이니(網羅四方) 이로써 국호를 삼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또 예로부터 국가를 영유(領有)한 자를 보건대, 모두 제(帝) 혹은 왕(王)이라 일컬었습니다. 우리 나라는 시조가 건국한 지 지금 22세가 되었으나, 다만 방언(方言)으로 일컫고 존호는 정하지 않았으므로, 이제 군신(群臣)이 의논하여 삼가 호를 '신라국왕'으로 지어 올립니다. 왕이 이를 따랐다(삼국사기 4 신라본기 4 지증왕 4년조).

64세에 어렵게 집권하고, 집권한 후에도 4년 간 갈문왕의 호칭을 폐지 못할 만큼의 정치적 불안정상황을 벗어나, '덕업일신'은 물론이거니와 '망라사방' 차원으로 나아감을 보여주고 있다. 정치상징(political symbolism)의 의미에서도 국호의 정립과 방언체계를 넘어선 국왕의 존호확정은 획기적인 전환이라 할 것이다.<sup>5)</sup>

정식즉위 이후 홍거할 때까지 10년간 지증왕은 일련의 새로운 변화를 주도한다. 이들 모든 변화를 정치개혁의 범주에 넣을 수 있는 것은 아니나, 지증왕의 이같은 지속적인 개혁정책 추진은 법흥왕대부터 새롭게 전개된 정치적 발전의 정초가 된 것만은 어김없는 사실이다. 지증왕이 주도한 변화를 『삼국사절요』의 편년에 따라 계속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개혁정책 중 눈여겨 볼 것은 국왕의 홍거 이후 시호(諡號)를 내리는 시법(諡法)이다. 신라에서는 지증왕의 경우가 처음이다. 이것을 지증왕이 취한 개혁정책이라

5) 신라국호 확정의 의미에 대해서는, 후보돈(1994)을 참조할 것.

표 1. 지증왕대의 개혁정책

연 대	개 혁 정 책	비 고
지증왕 5년(504)	(7) 새로운 상제(喪制) 반포 (8) 12개 성을 축성	
6년(505)	(9) 주군현제(州郡縣制) 도입 (10) 군주제(軍主制) 도입 (11) 얼음저장 시작	
10년(509)	(12) 동시(東市) 설치	
13년(512)	(13) 우산국(于山國) 합병	
15년(514)	(14) 소경(小京) 설치 (15) 시법(諡法) 시작	

\*일련번호는 본문에 이은 지증왕의 개혁정책의 연번임.

할 수 없으나, 그만큼 지증왕의 재위 중의 제반업적이 뚜렷하였기에 가능한 일이므로, 그 범주에 넣기로 한다.

### III. 법흥왕대의 불교수용과 국정쇄신 차원의 정치개혁

여기서는 법흥왕대의 국정쇄신 차원의 정치개혁에 대하여 논의(argue)해 보기로 한다. 법흥왕은 지증왕의 원자(元子)로서 관후(寬厚)하고 사람을 좋아하는 성품을 가지고 있었다(삼국사기 4 신라본기 4 법흥왕 1년조). 그는 부왕인 지증왕의 개혁정치를 계승, 전방위적 쇄신을 추구하였는 바, 이를 여섯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다.<sup>6)</sup>

□ 오늘날의 국방부에 해당하는 병부를 설치하여 왕권을 크게 강화시켰다(삼국사기 4 신라본기 4 법흥왕 4년조). 이 이전의 신라의 왕은 부족장 연합체제의 대표에 지나지 않았다. 부족장들은 각각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었으며, 군사지휘권의

6) 법흥왕대의 정치발전상에 대한 개괄적 이해를 위해서는, 노중국(1987, 33-70)을 참조할 것.

일원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국왕의 리더십은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

법흥왕은 최우선 개혁조치로 병권통일을 꾀함으로써, 첫째, 왕권을 강화하고, 둘째, 귀족들의 반발을 다스리면서 개혁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으며, 셋째, 대외적으로는 신라군의 전투력이 크게 강화되었음은 물론이다.

② 법과 제도에 의해 작동되는 국가시스템 확립하였으니, 곧 율령반포와 공복(公服)제정을 말한다(삼국사기 4 신라본기 4 법흥왕 7년조). 이것은 법치국가의 확립을 뜻한다. 법과 제도에 의해 작동되는 국가시스템을 갖춘 것이다. 또한 표준화된 유교 관료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귀족들을 관료체제로 편입시킴으로써 국왕 중심적 국가경영체제를 정착시킨 것을 의미한다. 중국식 문치주의의 수용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제 및 복제정비는 법흥왕 10년(523) 및 11년(524) 계속해서 이루어지는데(삼국사절요 6 523년조; 삼국사절요 6 524년조), 법흥왕이 얼마나 법과 제도에 의해 작동되는 국가시스템 정립을 염원했는지 알 수 있다. 또한 법흥왕은 재위 18년(531)에 이찬(伊滄) 철부(哲夫)를 상대등(上大等)으로 삼아 국사를 총괄하게 하였는데, 이것은 왕의 격상을 의미한다. 율령반포 이후 11년 만의 일이다.

③ 신라식 세계화를 추진하였다. 법흥왕은 재위 8년(521) 중국 양나라에 사신을 보내어 조공하는데, 이것은 더 이상 동아시아의 주변부로 머물기를 스스로 부정한 신라식 세계화라 할 수 있다(삼국사기 4 신라본기 4 법흥왕 8년조).<sup>7)</sup> 신라는 내물왕 26년(381) 북중국 전진에 사신 위두(衛頭)를 고구려 사신을 따라 보낸 후(삼국사기 3 신라본기 3 내물왕 26년조) 140여 년 간 중국과 단절되어 있었다. 양나라와의 관계설정은 형식에 있어서는 사대조공의 틀을 띠고 있었으나, 그 내재한 정신은 자주적 외교라 할 수 있다.

법흥왕 8년(521)에 양나라에 간 것은 백제의 도움을 받아서 가능하였다(양서 54 백제전). 그러다가 법흥왕 14년(527) 불교수용 이후에는 백제의 도움없이 독자적으로 양나라 등과의 소통에 적극성을 떨 수 있게 되었다(삼국사기 4 신라본기 4 법흥왕 15년조). 이를 보아도 불교수용의 국제관계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④ 사상의 통일과 보편적인 국가경영 이데올로기 정립하였으니, 곧 법흥왕의 조행불법(肇行佛法)이다(삼국유사 3 흥법 3 원종흥법·염축멸신조). 왕호 '법흥'은

7) 배병삼(1996, 121-122)은 법흥왕의 불교공인을 신라의 세계화로 보았다.



곧 이를 의미한다. 법흥왕은 재위 14년(527) 이차돈의 위법멸신(爲法滅身)을 통하여 불교를 공인한다. 율령반포와 공복제정을 하였음에도 왕권이 확립되지 않음에 대한 대안으로서 불교수용이 이루어진 측면이 컸다(박희택 2003, 제Ⅲ장).

서영대(1991, 247-253)는 신라왕실이 불교수용에 적극적이었던 데에는, 첫째, 불교가 기존의 종교보다 주술적인 면에서 더 우월한 것으로 받아들여졌으며, 둘째, 불교승려들의 새로운 문화나 국제사회에 대한 지식이 돋보였고, 셋째, 천신 위의 지고한 존재를 상징하는 불교의 초월적 세계에 대한 관념도 신라왕실의 요구에 적합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5] 금관가야(본가야)를 병합하는 등 작은 통일을 성취해냈다(삼국사기 4 신라본기 4 법흥왕 19년조). 법흥왕 19년(532) 가락국왕 김구해(金仇亥)가 그 왕비 및 세 아들인 맏아들 노종(奴宗), 둘째 아들 무덕(武德), 막내아들 무력(武力)과 함께 항복해오자 그를 예로 맞았다. 김구해에게 상등(上等)의 직위와 함께 금관국을 금관군으로 하여 식읍으로 삼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막내아들 무력은 지위가 각간(角干)에 이르렀다. 가락국왕 김구해와의 인연은 8년 전인 법흥왕 11년(524)으로 소급된다(삼국사기 4 신라본기 4 법흥왕 11년조). 왕이 남쪽 국경지역을 순행하면서 국토를 개척하였는데(王出巡 南境拓地), 이 때 김구해가 찾아와 법흥왕이 만나 주었다(伽倻國王 來會). 김구해가 찾아왔다는 점은 법흥왕의 군사력을 동반한 기세에 위축되었다는 점을 의미하고, 법흥왕이 만나 주었다는 것은 군사력으로 정복하지 않고 군사력을 보여 주면서 합병을 은근히 회유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금관가야를 병합한 것은 후일 삼국통일의 중심인물인 김유신으로 연결되어 깊은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김구해의 막내아들 김무력의 아들이 김서현(金舒玄)이고, 김서현의 아들이 김유신이다. 그러니까 각간까지 오른 김무력의 손자가 김유신이니, 김유신은 김구해의 증손자인 셈이다. 통일주체적인 측면에서 볼 때 김유신 없는 삼국통일은 상상하기 어려우므로, 그 씨앗이 뿌려진 법흥왕대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김유신 외에도 그의 부친인 김무력은 진흥왕 15년(554) 백제 성왕과의 관산성(管山城, 충북 옥천) 전투에서 성왕의 목을 벤 전과를 올렸으며, 삼국통일과정에서 큰 역할들을 한 인물들 중에는 금관가야의 후예가 많았다. 이렇게 볼 때 금관가야를 법흥왕 때 병합하였다는 사실은 불교수용 이래의 정치통합의 실체로서, 신라의 삼국통일에 직결되는 대단히 가치있는 사건이었다.

법흥왕은 금관가야 외 대가야와 혼인동맹을 맺어 적대적인 입장에 서지 못하게

하였는데, 다음이년 법흥왕 9년(522) 대가야 이뇌왕(異腦王)이 사신을 보내 청혼을 해오자(동국여지승람 고령현조), 법흥왕은 이찬(伊滄) 비조부(比助夫)의 여동생을 시집보냈다(삼국사기 4 신라본기 4 법흥왕 9년조). 이로써 백제의 위협을 느끼고 있던 대가야를 넓은 의미의 신라권에 편입시켜 보호해 주는 동시에, 신라의 일원으로 만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법흥왕 12년(525)에는 전략적 요충지인 사벌주(경북 상주)의 군주에 대아찬(大阿滄) 이등(伊登)<sup>8)</sup>을 임명하여 국토확장의 의지를 보였으며(삼국사기 4 신라본기 4 법흥왕 12년조), 재위 25년(538)에는 지방관이 가족을 데리고 부임하는 것을 허락하였고, 같은 해 아시랑국(阿尸良國)을 멸하여 군(郡)으로 삼았다(삼국사기 4 신라본기 4 법흥왕 25년조).

⑥ 불교에 기초한 자주외교와 자주적인 국가경영의 표현으로 독자적인 연호 '건원(建元)'을 제정하여 사용하였다(삼국사기 4 신라본기 4 법흥왕 23년조). 『삼국사절요』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 '중국의 분열로 인함'이란 분석은 모화적(慕華的)이다.

신라에서 비로소 연호를 제정하였다. 신라에서는 국초(國初)부터 중국의 연호를 사용하였는데, 이 때에 이르러 중국의 분열로 인하여 스스로 연호를 건원(建元) 원년이라고 하였다(삼국사절요 6 536년조).

앞에서 언급한 바 있듯이 법흥왕은 중국 양나라에 사신을 보내 140여 년 간 단절된 대중국관계를 개선한 바 있는데, 이는 자주적 외교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이의 연장선상에서 국가개발에 자신감이 붙자 독자적 연호를 제정한 것이다. 중국과 통교하되 자주성을 견지하고, 이를 연호 사용으로까지 확장한 것은 법흥왕의 개혁정치에서나 가능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적 국가경영관의 표현이라 할 연호 사용은 중국 황제에게만 통용된 것으로서, 법흥왕이 연호를 사용한 것은 중국 황제의 권위를 특별히 인정하지 않고, 자신을 그에 준하는 존재로 스스로 설정한 것이다. 말하자면 중국과 대등한 국가임을 선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건원'이란 연호는 한나라 무제가 제정한 중국 최초의

8) 『삼국사기』에서는 이등(伊登)으로, 『삼국사절요』에서는 이징(伊澄)으로 표기가 다르다.

연호와 같다. 법흥왕의 자부심이 어디까지 가 있었는지 짐작할 만하다고 하겠다.

신라는 이로부터 114년 간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김춘추가 650년 당나라에 군사지원을 요청하면서 당나라 연호 ‘영휘(永徽)’를 받아들이게 되고, 이에 독자적인 연호 사용은 끝나게 되었다. 이와 관련, 김부식은 독자적인 연호 사용이 잘못이라고 유교적인 사관으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데, 김부식이 비판받고 있다면, 이와 같은 사대성 때문일 것이다.

하(夏)·은(殷)·주(周) 삼대에서 각기 정삭(正朔)을 고치고 후세에 연호를 일컫는 것은, 모두가 대통일을 이룬 왕조가 백성의 이목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이유로 동일한 시기에 함께 일어나서 천하를 두고 양립하고 있는 경우가 거나, 또는 간웅들이 기회를 이용하여 천하를 노리는 경우가 아닌 이상, 주변의 소국으로서 천자의 나라에 신하의 처지로 속한 나라라면 절대로 사사로이 연호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 신라의 경우에는 줄곧 중국을 섬겨 사신들이 탄 배와 공물 꾸러미가 길에 연이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흥왕이 스스로 연호를 사용한 것은 잘못된 일이다. 그 뒤에도 이러한 잘못을 답습한지 여러 해가 되었으며, 태종의 질책을 듣고도 고치지 않다<sup>9)</sup> 이 때에 이르러 당나라 연호를 시행하게 된 것이다. 이것이 비록 부득이한 데에서 나왔으나, 허물을 능히 고친 것이라 하겠다(삼국사기 5 신라본기 5 진덕왕 4년조).

이상과 같은 법흥왕의 6대 개혁정치의 총합적 성과를 통해 신라가 삼국 중 최후 진국의 위치에서 벗어나 삼국통일의 기반을 조성한 것으로 평가된다(김철준 1990, 52).<sup>10)</sup> 이외에도 본 연구자가 답사해 본 사적 제176호인 경주시 충효동 선도산(仙

9) 진덕여왕 2년(648)의 일이다. “겨울, 감질허(邯軹許)를 당나라에 보내 조회하도록 하였다. 태종이 어사(御史)로 하여금 물었다. ‘신라가 신하의 자격으로 대국을 섬기면서 어찌하여 당과 다른 연호를 사용하는가?’ 감질허가 ‘일찍이 대국 조정에서 정삭을 반포하지 않았으므로, 선조 법흥왕 이래 우리 나라의 연호를 사용한 것이다. 만약 대국 조정의 명령이 있다면, 우리 나라가 어찌 감히 다른 연호를 사용하겠는가?’ 라고 말하니, 태종이 이를 수긍하였다(삼국사기 5 신라본기 5 진덕왕 2년조).”

10) 개혁정치의 결과 신라는 미지락(美知樂)을 짓고(삼국사절요 6 538년조), 유사(有司)에게 명하여 제언(堤堰)을 보수하게 하는(삼국사기 4 신라본기 4 법흥왕 18년조) 등 여유가 생겼다. 개혁정치의 작은 성과물이라 하겠으며, 통일기반조성은 개혁정치의 큰 성과물이라 할 수 있다.

桃山)<sup>11)</sup> 기슭의 법흥왕릉은 그 이전의 대규모 적석목곽분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작은 규모의 횡혈식 석실분이다. 크기가 일반봉분보다 다소 클 뿐이어서 걸출한 개혁군주인 법흥왕의 능묘가 아니라는 시비에 휘말리곤 한다. 그러나 『삼국사기』, 『삼국유사』 등이 언급한 애공사(哀公寺) 북쪽 봉우리에 틀림없이 위치하고 있다(삼국사기 4 신라본기 4 법흥왕 27년조; 삼국유사 1 왕력). 현재 애공사는 없고, 애공사 3층 석탑이 그 근처에 남아 증명해 준다. 이를 보면 법흥왕은 그 이전의 평지에 위치하면서 호화부장을 한 대규모의 적석목곽분을 거부한 실질승상의 임금임을 알 수 있다. 임종의 순간까지 그는 개혁정신을 놓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sup>12)</sup>

#### IV. 진흥왕대의 불교를 통한 정치개혁

진흥왕은 법흥왕의 뒤를 이어 법흥왕 못지 않는 개혁정치를 전개, 가히 완결의 자리에게까지 올려 놓았다. 법흥왕의 개혁정치는 지증왕으로부터 승계되어 왔으며, 진흥왕에 의해 완결되어졌으니, 이는 삼국통일의 탄탄한 기초가 되었다. 만일 개혁정치를 완결한 진흥왕이 없었다면, 법흥왕과 지증왕의 개혁노정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였을 것이 분명하고, 신라가 삼국통일이란 대업을 성취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다.

진흥왕은 법흥왕의 아우 갈문왕 입종(立宗)의 아들로서, 법흥왕에게는 조카가

11) 삼국유사 5 감통 7 선도성모 수희불사조의 그 '선도산'이다.

12) 법흥왕의 뒤를 이은 진흥왕의 능묘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 사적 제177호로 지정된 진흥왕릉은 법흥왕릉이 위치한 곳에서 가까이 있는데, 왕릉의 규모면에서 법흥왕릉의 그것보다 오히려 작은 느낌을 주며, 서악고분군의 하나로 아주 초라하게 자리잡고 있다. 신라의 영토를 함경도까지 확장하여 고구려 광개토대왕에 비견되는 군주의 능묘라 하기에는 왜소하기 그지없다. 이 점이 진위시비를 낳고 있는데, 만일 현재의 진흥왕릉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법흥왕의 조카로서 그의 개혁정치를 계승하면서 완성한 진흥왕이니 만큼 같은 맥락을 가진다고 할 수밖에 없다. 본 연구자는 논문작성과정에서 법흥왕릉과 함께 진흥왕릉을 답사하면서, 이들과처럼 신라를 완전히 변화시켜 삼국통일의 기반을 확고히 닦은 정치발전의 군주들이 경주 시내 평지에서 볼 수 있는 대규모 능이 아닌, 경주 외곽 산기슭에 아담한 음택(陰宅)을 가진 뜻을 사유해보게 되었다. 이것은 오직 국가개발 일념으로 자신을 시종일관 다스려나간 결과로밖에 해석할 수 없었다.

된다. 어머니는 법흥왕의 딸이다. 이렇게 보면 법흥왕은 외조부이기도 하다. 당시 신라사회는 근친혼이 흔하였음을 이 경우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진흥왕이 즉위한 것은 7세였고, 17세까지 왕태후(王太后)가 섭정하였다. 『삼국유사』에는 15세에 즉위하고, 태후가 섭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삼국유사 1 기이 1). 이렇게 보면 14세까지는 왕태후가 섭정하고, 15~17세까지는 태후가 섭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왕태후는 법흥왕의 왕비 보도부인(保刀夫人)이고, 태후는 진흥왕의 어머니인 지소부인(只召夫人)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설이다. 보도부인은 진흥왕에게는 큰 어머니이자 외조모가 되며, 지소부인은 법흥왕의 딸이 된다.

섭정은 '개국(開國)'이란 연호를 사용하면서 친정에 나선 재위 12년(551)의 전년인 재위 11년(550) 즉 왕이 17세 되던 해까지 계속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진흥왕 1년(540)~11년(550)의 11년간의 치적은 왕태후 내지 태후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보이나, 불과 18세에 새로운 연호를 내세우고 전문성왕 의식으로 친정에 나선 진흥왕의 조속과 빠른 정치적 성장이 간과될 수는 없을 것이다.

□ 진흥왕은 고대국가를 정비하고, 확대된 영토와 국민을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하여 많은 문화정책을 단행하였는 바(남도영 1987, 89-91), 대표적인 것이 진흥왕 6년(545)의 국사편찬이다. 『삼국사기』는 다음과 같이 전한다.

6년 가을 7월, 이찬 이사부가 왕에게, “나라의 역사라는 것은 임금과 신하들의 선악을 기록하여 좋고 나쁜 것을 만대 후손들에게 보여 주는 것입니다. 이를 편찬해 놓지 않는다면 후손들이 무엇을 보겠습니까?” 하고 여쭙었다. 왕이 깊이 동감하고 대아찬 거칠부 등에게 명하여 문사들을 널리 모아 그들로 하여금 역사를 편찬하게 하였다(삼국사기 4 신라본기 4 진흥왕 6년조).

비록 진흥왕이 친정하기 전의 일이고, 자신이 영토확장사업을 본격화하기 전이나, 지증왕대와 법흥왕대로부터 급격한 발전을 해온 신라의 역사를 정리해둘 필요성과 함께 국민정신의 구심점을 마련하기 위해 나라의 기본에 관한 사업을 한 것이다. 또한 연호사용으로 상징되는 대외적 자주의식은 신라의 역사적 정통성을 확립하기 위한 국사 편찬의 필요성을 느끼게 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김영하 1980, 159-160). 국가불교의 목적의식과 상통하는 바라 하겠다.

국사 편찬 외에도 큰 관심으로 장려한 것은 음악이다. 진흥왕 12년(551) 순행 중에 우륵(于勒)과 그의 제자 이문(尼文)으로 하여금 음악을 연주하게 하고(삼국

사기 4 신라본기 4 진흥왕 12년조), 주지(注知)·계고(階古)·만덕(萬德) 등 3인을 우륵에게 보내어 음악을 교육받게 하는 조치를 취한 것이 진흥왕이었다(삼국사기 32 잡지 1 악조). 여러 고전에 실해진 〈악(樂)과 정치〉의 상관성을 체득한 군주가 진흥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② 진흥왕의 정치개혁의 외면적인 성과는 재위 중 3배나 늘어난 영토확장에서 확인된다. 영토확장 행렬에는 불교승려가 왕을 지근거리에서 수가(隨駕)하였다(박희택 2003, 제III장). 진흥왕 11년(550) 3월에 백제가 고구려로부터 뺏은 도살성(道薩城, 충북 괴산), 고구려가 백제로부터 뺏은 금현성(金峴城, 충북 진천)을 신라가 다 취하고 군사 1천명으로 하여금 지키게 하였는데, 이 시점은 눌지왕 때 성립시켜 120여 년 간 유지된 나제동맹(433~553)이 유효하던 때였다. 그럼에도 진흥왕은 동맹국 백제와의 의리보다는 2개 성을 취하는 국가이익을 택한 것이다(삼국사기 4 신라본기 4 진흥왕 11년조). 물론 나제동맹에 따라 진흥왕 9년(548)에 고구려가 예(穢)와 함께 백제의 독산성(獨山城, 경기 오산)을 공격해 왔을 때, 백제가 구원을 요청하자 장군 주령(朱玲)과 정병 3천 명을 내보내어 백제를 도운 적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삼국사기 4 신라본기 4 진흥왕 9년조).

진흥왕의 실리적인 관계설정은 재위 12년(551)에도 계속된다. 한강상류지역(죽령 이북 남한강 유역)의 고구려 10개 군을 취하였는데(삼국사기 4 신라본기 4 진흥왕 12년조), 이 때의 진흥왕의 정치적 태도는 이중적이었다. 고구려를 치자는 제의는 고구려에 대한 복수심에 불타는 백제가 하였는데, 진흥왕은 이를 고구려에게 짐짓 알려 주어 고구려와 신라는 밀약을 맺었으며(삼국유사 1 기이 1 진흥왕조; 신당서 신라전; 일본서기 19 흠명천왕 14년조),<sup>13)</sup> 백제는 한강하류지역(서울 및 경기 일대)의 고구려 6개 군(郡)만 회복하게 하였다.

그리고 2년 후인 진흥왕 14년(553), 2년 전에 백제가 회복하였던 한강하류지역을 신라가 새로이 장악하여 신주(新州)를 설치함으로써 진흥왕의 한강유역에 대한 획득전은 완전한 결실을 거두었다(삼국사기 4 신라본기 4 진흥왕 14년조). 세 차례에 걸친 진흥왕의 지극히 현실주의적인 모습은 그를 일견 마키아벨리스트

13) 이 점은 황초령 및 마운령 진흥왕 순수비 상의 “이웃 나라가 신의를 서약하여 평화의 사절이 서로 내왕하였다(隣國誓信 和使交通)”는 귀절로도 확인된다(노중국 1992, 77; 노중국 1992, 87).

(Machiavellist)로 평가하게 하는 소재가 된다(장한식 1999, 220).<sup>14)</sup>

신라와 한편으로는 긴장관계에 있으면서도 한강유역 전체를 차지하도록 용인한 고구려의 사정은 복잡하였다. 무엇보다 당시의 고구려는 심각한 내부정쟁<sup>15)</sup>과 돌궐과의 신성(新城) 및 백암성(白巖城)전투로 남고(南顧)할 여유가 없었기에 남쪽 국경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었다. 고구려는 신라와의 밀착으로 나제동맹을 파기하게 하고, 신라와 백제의 결별로 한강유역을 되찾는 데도 용이할 수 있다는 정세판단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내물왕 이래 우호적인 감정(광개토대왕비에 기록되어 있는 왜 등으로부터 신라를 보호한 사실)이 남아있는 신라를 상대적으로 강국인 백제보다는 선호하였다고 할 수 있다(김기홍 2000, 129-130; 노태돈 1999, 429-435).<sup>16)</sup> 묘한 일치였지만, 이 일에 나선 신라의 주장 거칠부가 내물왕의 5대

14) 마키아벨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A prince, and especially a new prince, cannot observe all those things which give men a reputation for virtue, because in order to maintain his state he is often forced to act in defiance of good faith, of charity, of kindness, of religion. And so he should have a flexible disposition, varying as fortune and circumstances dictate(N. Machiavelli, tr. with an introduction by G. Bull 1961, 101)." 마키아벨리는 <선·신의·자비·인간미·신앙심>을 지도자의 5대 자질로 보면서도, 신의·자비·인간미·신앙심을 포괄하는 '선(virtue: virtu)'의 자질을 견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않으므로, 그렇기에 이와 같은 자질을 갖추고 있는 것처럼 — 특히 신앙심이 매우 두터운 사람처럼 대중들에게 보이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보았다. 마키아벨리는 여기서 더 나아가 그런 훌륭한 자질을 갖춘 채 정치를 한다면 군주에게 해가 되므로, 필요할 경우에는 정반대로 전환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현실세계에서는 위선은 불가피하다고 본 것이다. 그렇기에 '운명의 물결(fortune: fortuna)'과 '사태의 변화(circumstances: necessita)'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하였다. 'fortuna'와 'necessita'는 'virtu'와 함께 마키아벨리가 말하는 지도자의 필수조건이다.

15) 여기에 대해서는, 일본서기 19 흥명천황 6~7년조에 비교적 소상히 전하고 있다. 제23대 안원왕(531~545) 말년과 제24대 양원왕(545~559) 초년에 왕위승계를 놓고 중부인 외척세력인 추군(麤軍)과 소부인 외척세력인 세군(細軍) 간에 벌어진 심각한 권력다툼이었다. 패배한 세군세력 2천 명이 주살 당하는 대란이었다. 삼국사기 44 열전 4 거칠부전에서 승려 혜량이 언급한 "今, 我國政亂, 滅亡無日"의 정황이 묘사되어 있는 것이다.

16) 실제로 고구려는 제26대 영양왕(590~618) 즉위 후 온달장군의 활약으로 아차산성전투를 벌여 한강유역 회복을 시도한 바 있다. 온달은 영양왕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아차산성전투에 나가 전사하였다. "신라가 우리의 한북지(漢北之地)를 차지하여 자기

손이었다는 점, 고구려의 고승으로 신라 최초의 승통이 되는 혜량과 젊은 시절 원대한 뜻을 품고 축발위승(祝髮爲僧)하여 고구려에 들어갔던 거칠부와의 인연도 작용하였을 수 있다(삼국사기 44 열전 4 거칠부전).

그로부터 1년 뒤인 진흥왕 15년(554), 고구려와 신라의 밀약과 신라의 한강하류 지역 차지에 분노한 성왕이 대가야와 연합하여 직접 관산성전투에 나서 초기에 우세를 보였으나, 신주 군주 김무력의 참전으로 막판에 가서는 성왕 자신이 목숨까지 잃게 된다(삼국사기 4 신라본기 4 진흥왕 15년조). 백제의 비극은 더욱 깊어져 간 것이다. 『일본서기』에는 성왕의 최후가 비장하게 그려져 있다. 이 점은 『삼국사기』의 간략한 묘사와는 차이가 있는데, 『일본서기』의 편수책임자가 백제계이었을 개연성이 큰 점과 결부하여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은 『일본서기』의 기록이다.

신라는 명왕(明王: 聖王)이 친히 왔다는 것을 듣고, 나라 안의 군사를 모두 일으키고, 도로를 막고 격파하였다. 이 때 신라는 좌지촌(佐知村)의 사마노(飼馬奴) 고도(苦都)에게 “고도는 천한 종놈이요, 명왕은 이름있는 왕이다. 지금 천한 종으로서 군왕을 죽이게 하려 한다. 후세에 전하여져서 길이 그 이름이 남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얼마 후 고도가 명왕을 붙잡아 재배하고, “왕의 머리를 베게 하여 주소서”라고 말하였다. 명왕이 “왕의 머리는 종의 손에 맡길 수는 없다”라고 대답하였다. 고도가 “우리 나라의 법에는 맹세한 것을 어기면<sup>17)</sup> 국왕이라 하더라도 마땅히 종의 손에 죽습니다”라고 하였다. 명왕이 하늘을 우러러 보며 탄식하여 눈물을 흘렸다. 허락하면서 “과인은 매양 뼈에 사무치는 고통을 참고 살아왔지만, 구차하게 살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고, 머리를 늘어 베임을 당하였다. 고도는 참수하여 죽인 후에 구덩이를 파고 묻었다. 여창(餘昌: 威德王)은 드디어 포위당하여 나오려고 하여도 나올 수가 없었다. 사졸들은 당황하여 할 바를 몰랐다(일본서기 19 흙명천왕 15년조).

신라에 대한 극도의 배신감에 휩싸인 나머지, 신라를 습격하기 위하여 직접 기병과 보병 50인만을 거느리고 밤에 직접 움직인 것이 화근이었다. 구천(狗川, 충

---

들의 군현으로 만들었으므로, 그 곳의 백성들이 통탄하며 부모의 나라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바라옵건대 대왕께서 저를 어리석고 불초하다고 여기지 마시고 군사를 주신다면 단번에 우리 땅을 도로 찾겠습니다(삼국사기 45 열전 5 온달전).”

17) 고도는 백제 성왕이 나제동맹을 먼저 파기한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 같다.



북 옥천군 군서면 월전리)에서 신라의 매복병을 만나 살해당한 것이다(삼국사기 26 백제본기 4 성왕 32년조). 진흥왕 15년(554) 이후에도 영토확장과 관계되는 기사는 『삼국사기』를 채우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18)</sup>

③ 진흥왕대의 정치발전은 역동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 점은 진흥왕 12년(551) 이래로 세 차례에 걸친 건호(建號)에 상징적으로 나타나 있다. 신라가 중국과 다른 독자적인 연호를 내세우는 것은 불교식 왕명시대인 중고기에 국한된 것으로서,<sup>19)</sup> 불교의 세계화기능과 어떤 상관성을 띠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건호 자체는 유교적 발상이므로, 연호 자체에 담긴 유교적 의미는 무엇인지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

중고기에 사용된 연호를 표 2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재위 4년만에 폐위된 진지왕<sup>20)</sup> 외의 중고기 왕들은 한결같이 건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에서도 살

18) 삼국사기 4 신라본기 4 진흥왕 16~37년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찾을 수 있다.

- (1) 16년(555): 정월에 비사벌(경남 창녕)에 완산주를 설치하였다.
- (2) 16년(555): 10월에 북한산을 순행하여 국경을 획정하였다.
- (3) 17년(556): 7월에 비열홀주(함남 안변)를 설치하였다.
- (4) 18년(557): 국원(충북 충주)을 소경(小京)으로 만들었다.
- (5) 18년(557): 사벌주(경북 상주)를 폐지하고, 감문주(경북 김천)을 설치하였다.
- (6) 18년(557): 신주를 폐지하고, 북한산주를 설치하였다.
- (7) 19년(558): 2월에 귀족의 자제와 6부의 호민(豪民)들을 국원으로 이주시켰다.
- (8) 19년(558): 내마 신득(身得)이 포(砲)와 노(弩)를 만들어 바치기에 성벽 위에 배치하였다.
- (9) 23년(562): 7월에 백제가 변경을 침입하므로 군사를 보내 1천여 명을 살획(殺獲)하였다.
- (10) 23년(562): 9월에 이사부와 사다함으로 하여금 대가야를 쳐 항복을 받았다.
- (11) 26년(565): 8월에 아찬 춘부(春賦)로 하여금 국원을 지키게 하였다.
- (12) 26년(565): 9월에 완산주를 폐지하고, 대야주(경남 합천)을 설치하였다.
- (13) 29년(568): 10월에 북한산주를 폐지하고, 남천주를 설치하였다.
- (14) 29년(568): 비열홀주를 폐지하고, 달홀주를 설치하였다.

19) 신라 제41대 헌덕왕 14년(822), 웅천주도독 김현창이 반란을 일으켜 국호를 '장안(長安)'이라 하고, 연호를 '경원(慶元)'이라 한 사례가 있다(삼국사기 10 신라본기 10 헌덕왕 14년조).

20) '정치개혁'의 국면으로 보면, 지증왕대를 <정초(定礎): 정치개혁을 통한 토대구축>으

표 2. 신라 중고기의 독자연호

왕 대	연호	건호시점	비 고
법흥왕	건원(建元)	법흥왕 23년(536)	신라 최초 독자연호
진흥왕	개국(開國)	진흥왕 12년(551)	
	대창(大昌)	진흥왕 29년(568)	마운령비, 황초령비에서는 '태창(太昌)'
	홍제(鴻濟)	진흥왕 33년(572)	
진평왕	건복(建福)	진평왕 6년(584)	
선덕왕	인평(仁平)	선덕왕 3년(634)	
진덕왕	태화(太和)	진덕왕 1년(647)	신라 최후 독자연호, 『삼국유사』에서는 '대화(大和)'

펴본 바가 있듯이 법흥왕이 '건원'이란 시원적 연호를 사용한 것은 신라 최초의 연호라는 점을 고려하고, 불교를 통해 당시 세계의 중심부였던 중국과 소통하고자 한 자주적 대외의식의 발로라고 할 것이다.<sup>21)</sup>

진흥왕은 무려 세 차례의 건호를 하였는데, 그만큼 자신을 다잡으면서 국가경영을 단계마다 새롭게 하고자 한 강렬한 원력(願力)의 산물이라 할 것이다. '개국'이란 연호는 친정의 뜻을, '대창'은 국력의 대외적 과시를, '홍제'는 강력한 왕권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신형식 1997, 247). 이러한 거듭된 건호는 진흥왕대의 정치발전의 역동성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라 하겠다.

〔4〕진흥왕 37년(576) 재위 마지막해에 화랑도를 정비하였다. 화랑도는 법흥왕대에 도입된 제도인데, 이 때에 정비한 것이다. 화랑도가 법흥왕대에 제정되었다는 것은 진흥왕 37년(576) 봄의 '원화제도(源花制度)'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삼국사기』 기사(삼국사기 4 신라본기 4 진흥왕 37년조)와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같은 『삼국사기』의 진흥왕 23년(562)의 기사와 관련 〈열전〉에는 화랑 사다함이 대가야가 모반하였을 때 혁혁한 공을 세웠다고 전하고 있다(삼국사기 4 신라본기 4 진흥왕 23년조; 삼국사기 44 열전 4 사다함조). 『삼국유사』에도 진흥왕대 초기에 원화

로, 법흥왕대를 〈성취(成就): 불교수용과 전방위적 쇄신〉으로, 진흥왕대를 〈공고(鞏固): 정치개혁의 불교적 완결〉로, 진지왕대를 〈동요(動搖): 왕위계승과 관련한 일시적 혼돈〉으로 해석할 수 있다.

21) 신형식(1999, 188)은 법흥왕의 '건원'이란 연호는 강력한 왕권확립의 기념적 조치로 본다.

제도를 세웠다가 폐지하고, 화랑제도를 도입하였다는 기록이 보인다(삼국유사 3 답상 4 미륵선화·미시랑·진자사조). 이렇게 본다면 진흥왕 37년은 화랑도의 완전한 제도화 시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며, 진흥왕 1년 내지 진흥왕대 초기로 화랑도의 제정시점을 소급할 수 있다.

화랑도 제정의 시점을 올려 잡는 견해로는 다음 몇 가지가 있다. (1) 군제개혁이 크게 이루어진 진흥왕 5년 경에 제정되었다는 견해, (2) 중고기 초기에 제정되었다는 견해, (3) 법흥왕 7년의 율령제정과 결부짓는 견해 등이 있다. 어떤 견해든 『삼국사기』의 진흥왕 37년보다는 상당히 상향하며, 대체로 법흥왕대에 제정되었다는 설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진흥왕대 정치개혁의 완결은 불교적 정치제도라 할 화랑도(박희택 2003, 제III 장)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진흥왕대의 광범위한 영토확장과 많은 과업수행이 가능했던 것은 화랑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현좌충신(賢佐忠臣)과 양장용졸(良將勇卒)이 여기서 나왔다는 김대문의 평가(삼국사기 4 신라본기 4 진흥왕 37년조)는 이 때문이다.

또한 진흥왕은 재위 중 홍륜사·황룡사·기원사·실제사·영흥사 등 5사를 창건하였는데, 홍륜사는 법흥왕대에 착공한 것을 완공한 것이고, 황룡사는 13년에 걸쳐 건립한 국찰로서 품격을 지닌 사찰이다. 사찰 창건 외에도 승관제를 도입하였으며, 팔관회와 백고좌법회 등을 개최하여 불교중심의 진호국가사상(鎮護國家思想)을 고취해 나갔다.

## V. 결론: 신라의 국가불교 전개기 정치개혁의 현재적 의의

신라 국가불교 전개기(展開期)라 할 법흥·진흥왕대의 정치개혁의 현재적 의의를 검토해 보는 것으로써 결론을 삼고자 한다. 이 시기는 고구려의 경우 <문자왕 → 안장왕 → 안원왕 → 양원왕 → 평원왕>에 해당되고, 백제의 경우 <무령왕 → 성왕 → 위덕왕>에 해당된다. 고구려의 왕이 5대에 걸쳐 교체되었음은 고대 정치체제에 있어서 불안정성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해량 법사의 탄식(양원왕 7년, 551)에서 볼 수 있듯이, 지도층은 극도의 내분에 빠졌으며, 돌궐같은 외부의 적과 싸우느라 힘을 소진해 가고 있었다. 백제 또한 신라와 같은 근본적이고도 과감한

정치개혁의 동정을 찾기가 어려운 가운데, 성왕은 독산성전투(548)에서 신라와 연대하여 고구려에 패배를 안겨 주었으나, 관산성전투(554)에서 자만과 방심으로 어이없게 목숨을 잃고 있다.

이에 비해 신라는 국가불교를 통해 사찰을 세워 민심을 모으고, 제반 시스템의 쇄신에 힘을 쏟으며, 국경개척에 여념이 없고, 뛰어난 책략으로 삼국 간의 항쟁에서 매번 승세를 잡아가고 있음을 읽을 수 있다. 신라의 국가불교 전개가 정치개혁을 추동(推動)하였다는 점이 첫 번째 의의라 할 것이다.<sup>22)</sup> 기본적으로 국가불교가 작동하면서 군민(君民)을 결속시키는 한편, 당대 신라가 정치적으로 지향하였던 고대국가체제 확립이라는 국가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해 나갔다고 할 수 있다.

이 의의의 연장선상에서 당대(當代)의 불교가 정치통합의 기능을 훌륭히 수행하였다고 하겠으며, 이것은 정치와 종교의 관계에서 극히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두 번째 의의가 된다. 불교정치사상은 그 시대, 그 공간의 요구에 따라 체용적(體用的) 변모를 해왔다. 말하자면 불교라는 본체〔體〕는 정치적 조건(시대와 공간)에 따라 작용〔用〕을 달리 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이것은 극히 자연스런 현상으로, '통합'을 '체'로 하는 불교사상의 정치적 재구성이라 할 것이다. '용'적 변화를 통해 통합의 체를 새롭게 세워나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하면 석존 당시의 상업발달과 도시국가단계에서는 공화국에 관한 불교정치사상이 꽃피었다면, 마우리아왕조 아소카왕대의 통일제국단계에서는 전륜성왕사상이 대두되었다. 인도에서는 불교와 정치가 양립하는 양상을 띠었다. 불교가 중국에 수용되어서는 인도와 달라졌는데, 그것은 당시 중국은 왕권이 확립된 이후라서 불교는 왕권에 종속되기를 요구받았던 사정과 관계된다. 왕권은 불교가 정치에 기여하길 바랐는데, 특히 남조의 수나라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성향이 굳어졌다. 이에 비해 북조는 '왕즉불사상'을 확립하여 왕의 권위를 불에 가탁하는 양상을 보였다.

신라의 경우 당대의 요구는 소국통합으로 왕권을 강화하는 것이 제1과제였다. 이러한 까닭에 인도에서의 전륜성왕사상과 중국 북조에서의 왕즉불사상을 혼합적으로 수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법흥왕의 왕권강화정책과 진흥왕의 전륜성왕의식

22) 고구려와 백제가 불교수용을 하고서도 신라와 같은 정치개혁으로 연결하지 못한 측면에 대해서는 별고(別稿)를 요한다.

등은 당대 불교정치사상의 필연적 귀결로서, 사상의 통일과 보편적 국가경영 이데올로기의 정립과 직결되었다.

세 번째 의의로, 신라의 불교수용은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던 중국과의 소통을 독자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sup>23)</sup> 신라인들로 하여금 주변부의식을 불식시켰으며, 국가불교의 전개와 함께 고대국가체제를 확립해 나감으로써 자주 의식이 고양되는 방향을 띠었다. 법흥왕과 진흥왕의 중국과는 다른 독자적 연호 제정은 이를 웅변으로 말해 준다. 불교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단절된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할 수 없었으며, 동시에 신라에 수용된 북조불교의 왕즉불사상을 통해 신라의 국가적 정체성을 공고히 하여 중국에 대응하는 독자적 연호 사용으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연호사용이 불교에 기초한 자주 의식의 고양이란 점은 고구려 연호와 비교하여 보아도 알 수 있다. 고구려 연호는 문헌자료 상에는 보이지 않고, 금석문자료 상에만 나타나기 때문에 다소 엇갈리는 견해가 있기도 하나, 손영중(2000, 174)은 표 3과 같이 비교적 명확하게 정리하고 있다. 고구려 또한 소수림왕대의 불교수용 이후 고대국가체제를 확립해 나가면서 중국과는 다른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점은 신라의 경우와 명확히 일치하는 바로서 시사하는 바 크다고 하겠다.<sup>24)</sup>

네 번째 의의로, 신라정치의 상향적(上向的) 리더십(leading up)<sup>25)</sup>이란 의미있는 코드를 포착해낼 수 있다. 법흥왕을 리더한 이차돈, 진흥왕을 리더한 이사부 등이 전형적인 예이다.<sup>26)</sup> 이차돈과 법흥왕의 불교수용은 물론이거니와, 이사부와 진흥

23) 불교수용 6년 전인 법흥왕 8년(521)에 백제의 도움을 받아서 1회성으로 중국과 소통하였다면, 법흥왕 14년(527) 불교수용 이후에는 그 소통이 신라 독자적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24) 백제의 경우 칠지도(七支刀) 등을 일본에 내려 일본내 제후국들을 거느린 자부심을 드러내었으나, 연호사용의 기록은 잘 보이지 않는다. 다만 칠지도 명문의 들머리의 '태화(泰和)'를 근초고왕의 연호로 보는 시각이 있는 정도이다. 이것은 백제에서는 연대를 표기함에 있어서 연호를 사용하지 않고, 간지를 썼다는 점과도 관계가 있다고 보여진다.

25) 상향적 리더십에 대해서는, M. Useem(2001)을 참조할 것.

26) 또한 마립간기 말왕인 지증왕에 대해 국호 신라를 받아들여 한 군신(群臣), 중고기의 진평왕에 대한 김후직(삼국사기 45 열전 5 김후직전), 중대에 들어서서는 김춘추에 대한 김유신(삼국사기 41 열전 1 김유신전), 문무왕에 대한 의상대사(삼국사기 7 신라본

표 3. 고구려의 연호

왕 대	연호	건호년(지속년)	비 고
소수림왕	건시(建始)	소수림왕 2년(3년)	고구려 최초 연호, 372-374
	태녕(泰寧)	소수림왕 4년(4년 이상)	374-397-?
광개토대왕	영락(永樂)	광개토대왕 1년(22년)	391-412
장수왕	연가(延嘉)	장수왕 1년(7년 이상)	413-419-?
	연수(延壽)	장수왕 39년(1년 이상)	451-?
	건흥(建興)	장수왕 60년(5년 이상)	472-476-?
문자왕	백선(百善)?	문자왕 17년(4년 이상)	508-511-?
양원왕	태화(泰和)	양원왕 14년(3년 이상)	544-546-?
평원왕	영강(永康)	평원왕 7년(7년 이상)	565-571-?

왕의 국사편찬과 관련한 상향적 리더십현상 또한 국민정신의 구심점 마련과 신라의 역사적 정통성을 확립이라는 목적의식을 가졌다는 점에서 국가불교와 연관된다고 할 것이다.

이 리더십 개념은 리더를 리드하는 아래로부터 상향적 리더십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위와 아래가 윈-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승적(相乘的) 리더십(reciprocal leading)이 된다. 신라의 이러한 리더십 현상은, 금석문자료를 통해 볼 수 있는 신라 중고기 '실명제' 내지 '이름을 기억해 주는 미학'<sup>27)</sup>과 더불어 신라 정치의 특징적 요소라 할 만하다. 이 두 현상은 파이너가 말한 궁중형 체제(palace regime)에 대비되는 포럼형 체제(forum regime)로 성격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sup>28)</sup> 포럼형 체제를 구성하고 있는 상향적 리더십현상은 불교수용 이전의 지증왕대에도 그 맹아가 보이는 것으로서, 신라정치에 있어서 리더십을 주목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기 7 문무왕 21년조) 등도 전형적인 예가 된다.

27) 여기에 대해서는, 박희택(2003, 제Ⅲ장)을 참조할 것.

28) 궁중형/포럼형 체제에 대해서는, S.E. Finer(1997, 56-58)를 참조할 것.

## 참고문헌

### 1차 자료

- 『동국여지승람』, 『삼국사기』, 『삼국사절요』,  
『삼국유사』, 『신당서』, 『양서』, 『일본서기』.

### 2차 자료

- 공성진, 1991. "S.S. Wolin의 혁명론으로 본 한국정치." 『포럼21』 2.  
김기홍, 2000. 『천년의 왕국 신라』. 서울: 창작과 비평사.  
김영하, 1980. "신라 중고기의 대중인식." 『민족문화연구』 15.  
김철준, 1990. 『한국 고대사 연구』.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김철준·최병현, 1986. 『자료로 본 한국문화사: 고대편』. 서울: 일지사.  
남도영, 1987. "진흥왕의 정치사상과 치적." 『통일기의 신라사회 연구』. 경주: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노중국, 1987. "법흥왕대의 국가체제 강화." 『통일기의 신라사회 연구』. 경주: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노중국, 1992a. "마운령 진흥왕 순수비." 『한국고대 금석문 II』. 서울: 가락국사적개발원.  
노중국, 1992b. "황초령 진흥왕 순수비." 『한국고대 금석문 II』. 서울: 가락국사적개발원.  
노태돈, 1999. 『고구려사 연구』. 서울: 사계절.  
박성천, 1999. "신라 지증왕의 즉위과정에 대한 연구."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희택, 2003. "신라의 불교수용과 정치발전 연구: 법흥·진흥왕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배병삼, 1996. "신라 진흥왕의 국가발전전략: 세계화와 주체화의 융섭." 『한국정치학회보』 30-4.  
서영대, 1991. "한국고대 신관념의 사회적 의미."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손영중, 2000. 『고구려사의 제 문제』.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신형식, 1997. 『한국고대사의 신연구』. 중판; 서울: 일조각.  
신형식, 1999. 『한국의 고대사』. 서울: 삼영사.

- 위 영. 2001. "신라 중고기 국가불교의 전개: 불교공인과 승관제를 중심으로." 『문화사학』 15.
- 이기백. 1997. 『신라사상사 연구』. 중판; 서울: 일조각.
- 장한식. 1999. 『기마민족의 신라통치, 그 시작과 끝』. 서울: 풀빛.
- 주보돈. 1994. "신라국호의 확정과 민의식의 성장." 『구국 황종동 교수 정년기념 사학논총』.
- 최광식. 1983. "신라의 신궁설치에 대한 신고찰." 『한국사연구』 43.
- 최병헌. 1990. "불교사상과 신앙." 『한국사특강』.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홍운식. 1992. "신라 국가불교의 형태와 구조." 『한국 불교문화 사상사: 가산 이지관 스님 화갑기념논총(상)』.
- 鎌田茂雄·장휘옥 역. 1992. 『중국불교사 1: 초전기의 불교』. 서울: 장승.
- 李成市. 1998. 『古代東アジアの民族と國家』. 東京: 岩波書店.
- 平川彰. 1964. 『原始佛教の研究: 教團組織の原型』. 東京: 春秋社.
- Dauids, T.W.R. 1971. *Buddhist India*. Delhi: Motilal Banarsidass.
- Finer, S.E. 1997. *The History of Government I*. Oxford: Oxford Univ. Press.
- Machiavelli, N. 1961. *The Prince*. tr. with an introduction by G. Bull. Harmondsworth: Penguin Books.
- Useem, M. 2001. *Leading Up: How to Lead Your Boss So You Both Win*. N.Y.: Crown Business.
- Wolin, S.S. 1960. *Politics and Vision: Continuity and Innovation in Western Political Thought*. Boston: Little, Brown.
- Wolin, S.S. 1989. *The Presence of the Past: Essays on the State and the Constitution*.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 Press.



**ABSTRACT** ■■■

## **Silla's National Buddhism and Political Reform**

**Park, Hee Taek** : Uiduk University

National Buddhism designates Buddhism related to polity preservation. The evolution of Silla's national Buddhism started on the king Bobheong(法興) and intensified on Jinheong(眞興) era. National Buddhism was connected with politics, institutions, thoughts, cultures for the increase of sovereign powers, didn't distinguish Buddhist thoughts from government ideologies.

On the basis of the evolution of Silla's national Buddhism, this study is focused on the context of political reform of the king Bobheong and Jinheong era. Through this discussion, I have interpreted four political points. Firstly, national Buddhism promoted political reform. Secondly, Silla's Buddhism performed the function of political integration. Thirdly, Silla's approval of Buddhism swept off Silla people's senses of periphery through communication with China that is the core of world. Fourthly, I have pointed upward leadership as a characteristic of Silla's politics.